

東醫壽世保元中 性命論에 對한 研究

金 敬 堯 * · 洪 淳 用 *

I. 緒 論

《東醫壽世保元》은 四象醫學의 原典으로서 사람의 體質에는 本質적으로 五臟의 虛實이 固定되어 있어 이로써 太少陰陽人이 區分되어 있으며 各 體質에는 體形·容貌·心理狀態가 다르며 또한 生理·病理·藥理가 다르다는 劃期的인 醫學說이다.

內容을 살펴보면 原論으로서 性命論·四端論·擴充論·臟腑論을 비롯하여 四象人辨證論·養生論인 廣濟說이 있고 醫源論에는 太少陰陽人의 病論과 이에 隨伴되는 基本處方이 提示되었다. 이 중에서 性命論은 四象說의 原論으로서 天人性命의 四元構造的 要素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비록 哲學的 思惟에서 成立되었다 할 지라도 天命과 人性的 四象的 概念을 把握하는 것이 四象醫學을 理解하는 入門이요, 捷徑이 되기 때문에, 著者는 性命論의 基本思想이 비록 難解하긴 해도, 여러가지 文獻을 參酌하여 本 研究를 試圖한 것이다.

II. 研究 方法

原文의 研究를 돕기 위하여 字解·字句解釋·解說을 달고, 直譯을 하였다.

가. 原文은 《東醫壽世保元》에 準하였고, 懸吐는 朴의 《東醫四象大典》과 傳來의 懸吐方式을 參考하였다.

나. 字解는 原文의 뜻에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取擇하였다.

다. 字句解釋·解說은 아래 3種의 文獻에서 引用하였다.

〈參考書目〉

1.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以下 “洪·李”로 約 한다.)
2. 朴與彥; 《東醫四象大典》(以下 “朴”으로 約 한다.)
3.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以下 “韓”으로 約 한다.)

라. 直譯은 原文의 句讀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마.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字解에 ○, 字句解釋에 [], 引用文獻에)로 表示하였다.

III. 研究 內容

《性命論》

[原文]

①[1] [2] [3]
天機有四하니 一曰地方이오, 二曰人倫이오, 三
[4] [5]
曰世會이오, 四曰 天時니라.

[字 解]

① 機; 氣運之變化 기미기

[字句解釋]

[1] 天機; 天機의 「天」은 大自然의 理法으로 看做되기도 하고, 「機」는 기를, 즉 機密이기도 하다.”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2] 地方; 「東西南北의 方位를 갖춘 地域」으로서 平面世界를 意味한다. 여기에는 山·野·川이 있는 國土·鄉里의 概念으로 표시한다.²⁾

[3] 人倫; 1對1의 單數로 맺어진 人間關係를 意味한다. 父子·兄弟와 같은 血緣關係는 물론이거니와 君臣·夫婦·師弟와 같은 非血緣關係에까지 이르게 된다.³⁾

[4] 世會; 社會集團으로 형성된 人間關係를 意味한다. 여기에는 政治·經濟등의 文化現象이 制度的으로 存在해야 하는 세계인 것이다.⁴⁾

[5] 天時; 悠久한 歷史現象으로서의 現實性を 意味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事件이 있고 活動이 있다.⁵⁾

[直譯]

하늘의 기밀에는 네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地方이요, 둘째는 人倫이요, 세째는 世會요, 네째는 天時니라.

[原文]

[6] [7] ②[9]
人事有四하니 一曰居處오, 二曰黨與오, 三曰交
③[9] [10]
遇오, 四曰事務니라.

[字解]

② 黨; 朋也 무리당

③ 遇; 道路相逢 만날우

[字句解釋]

[6] 人事; 사람이 하는 일,⁶⁾ 人間生活의 樣相과 與件⁷⁾

[7] 居處; 地方과 對, 人間生活의 據點,⁸⁾ 들어앉아서 休息하는 곳⁹⁾

[8] 黨與; 人倫과 對, 가장 親密한 人間관계, 血緣關係¹⁰⁾

[9] 交遇; 世會와 對, 交遇關係,¹¹⁾ 異質의인 兩性이 만나서 一로 融和되는 것¹²⁾

[10] 事務; 天時와 對, 한 인간의 日常生活로 歷史的 使命(天時)의 個人的 實踐事項이다.¹³⁾

[解說]

天機有四節과 對句로, 이 두 節은 性命論의 二大支柱이다.¹⁴⁾

[直譯]

사람이 하는 일이 네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居處요, 둘째는 黨與요, 세째는 交遇요, 네째는 事務니라.

[原文]

④ [11] ⑤ [12] ⑥ [13]
耳聽天時하며 目視世會하며 鼻嗅人倫하며 口
⑦ [14]
味地方이니라.

④ 聽; 聆也 들을청

⑤ 視; 瞻也 볼시

⑥ 嗅; 以鼻取氣 냄새맡을후

⑦ 味; 滋一物之精液 맛미

[字句解釋]

[11] 耳聽天時; 「耳와 聽」 귀는 天地間의 갖가지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지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無形無體한 天時は 「耳神」 聽神經으로 듣는다고 한 것이다.¹⁵⁾

[12] 目視世會; 「目과 色」 눈은 世上의 萬物과 갖가지 빛을 보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有像한 靈目으로 能히 世會를 觀察하여 浮動하는 빛을 눈으로 본다고 한 것이다.¹⁶⁾

[13] 鼻嗅人倫; 「鼻와 嗅」 코는 좋은 空氣를 몸에 呼吸하여 주는 것이며 惡臭를 避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人間의 善한 道理와 腐敗한 道理를 鼻魂이 默探하는 것이다.¹⁷⁾

[14] 口味地方; 「口와 味」 모든 食物의 맛은 口로서 感味하는 것이다. 口魄은 有質한 것으로서 能히 地方을 맛보는 것이고, 많은 種類의 滋養質液을 口로 甘食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⁸⁾

[解 說]

天機의 四象과 人體의 四大表出 感覺器官과 의 生理的 關係를 밝히고 있다.¹⁹⁾

[直 譯]

귀는 天時를 듣는 일을 하며, 눈은 世會를 보는 일을 하며, 코는 人倫을 맡는 일을 하며, 입은 地方을 맛보는 일을 하는 것이니라.

[原 文]

⑧⑨[15] 天時는 極蕩也오, 世會는 極大也오, 人倫은 極
⑩[16] 廣也오, 地方은 極邈也니라.
⑪[17] ⑫[18]

[字 解]

- ⑧ 極; 至也 지극할극
- ⑨ 蕩; 廣遠邈 넓고클탕, 震動也 흔들릴탕
- ⑩ 大; 小之對 클대, 長也 길대
- ⑪ 廣; 濶也 넓은광
- ⑫ 邈; 遠也 멀막, 渺也 아득할막

[字句解釋]

[15] 天時極蕩; 「天時」란 悠久한 歷史現象으로 流水처럼 流轉하는 變化現象이므로 極蕩이다.²⁰⁾

[16] 世會極大; 「世會」란 國家나 天下가 政治·經濟·文化 등의 複合構造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이는 體積으로 파악되므로 極大이다.²¹⁾

[17] 人倫極廣; 「人倫」이란 父子·兄弟·朋友 등 1:1의 人間관계로서 線의 單數構造로서 넓이로 파악되므로 極廣이다.²²⁾

[18] 地方極邈; 「地方」 東西南北의 方向 또는 方位로서 極邈이다.²³⁾

[直 譯]

天時는 地극히 蕩蕩하고, 世會는 地극히 크며, 人倫은 地극히 넓고, 地方은 地극히 아득하다.

[原 文]

⑬ [19] 肺達事務하며 ⑭ [20] 脾合交遇하며 ⑮ [21] 肝立黨與하며 ⑯ [22] 腎定居處니라.

[字 解]

- ⑬ 達; 通也 사무칠달
- ⑭ 合; 結也 합할합
- ⑮ 立; 起住 설립
- ⑯ 定; 決也 정할정

[字句解釋]

[19] 肺達事務; 通達事務는 肺의 活動에 의한 清血의 供給을 의미한다.²⁴⁾

[20] 脾合交遇; 非血緣集團들이 複合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것은 마치 脾·胃의 無分別한 混合·消化의 機能을 상징한다.²⁵⁾

[21] 肝立黨與; 血緣家族의 整立이니 이는 肝의 解毒·保血機能을 彷彿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⁶⁾

[22] 腎定居處; 腎의 胎生學的 機能이 排世과 生殖이니만큼 居處安定的 第一次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²⁷⁾

[解 說]

人事의 四象과 內臟器官과의 機能的 關係를 밝히고 있다.²⁸⁾

[直 譯]

肺는 事務에 통달하고, 脾는 交遇를 취합하며, 肝은 黨與를 정립하고, 腎은 居處를 안정케 한다.

[原 文]

⑰ [23] 事務는 克修也오, 交遇는 克成也오, 黨與는 克

①⑨[25] 整也오, 居處는 克治也니라.

[字 解]

- ①⑦ 修; 飾也 닦을수
- ①⑧ 成; 就也 이룰성
- ①⑨ 整; 齊也 가지런할정
- ②① 治; 理也 다스릴치

[字句解釋]

[23] 事務克修; 事務는 주로 文書作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自己를 이기고, 熱心으로 文學을 하여서 그 몸을 닦고, 學位를 갖추고, 또한 부지런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²⁹⁾

[24] 交遇克成; 交遇란 非血緣的 人間集團內에서의 人間관계이니³⁰⁾, 먼저 自己를 이기고, 學力·學識을 養成하여서, 學理的으로 理論을 成立시켜야 한다고 하였다.³¹⁾

[25] 黨與克整; 黨與는 遠近 上下親戚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³²⁾, 自身을 단련하고, 깊이 學文을 研究함으로서, 自身이 整立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³³⁾

[26] 居處克治; 自己의 家·家庭·家族과 함께 生活하는데 있어서 私慾을 이기고 잡념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였다.³⁴⁾

[直 譯]

事務는 잘 가다듬어져야 하고, 交遇는 잘 이루어져야 하며, 黨與는 잘 정돈되어야 하고, 居處는 잘 다스려져야 한다.

[原 文]

②① [27] ②② [28] ②③ [29]
領有籌策하고 臆有經綸하고 臍有行檢하고 腹
②④ [30]
有度量이니라.

[字 解]

- ②① 領; 頤也 턱함
- ②② 臆; 胸也 가슴억
- ②③ 臍; 子初生繫胞斷之爲 배꼽제
- ②④ 腹; 五臟總括 배부

[字句解釋]

[27] 籌策; 利害關係를 헤아려서 생각하는 꾀³⁵⁾.
一般的으로는 正確한 計算을 의미한다.³⁶⁾

[28] 經綸; 일을 조직적으로 잘 짜내는 企劃性³⁷⁾

[29] 行檢; 品行을 方正하게 하는 것³⁸⁾

[30] 度量; 너그러운 包容力³⁹⁾

[解 說]

頤臆臍腹은 人體의 前面部位에 있으나, 耳目鼻口나 肺脾肝腎처럼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턱」「가슴」「배꼽」「아랫배」의 오직 그 부위만 지적할 따름이다. 이는 天機의 人間化요 그의 具體라 할 수 있다.⁴⁰⁾

[直 譯]

턱에는 籌策이 있고, 가슴 속에는 經綸이 들어 있으며, 배꼽에는 行檢이 있고, 아랫배에는 度量이 있다.

[原 文]

籌策은 不可驕也오, 經綸은 不可矜也오, 行檢은 不可伐也오, 度量은 不可夸也니라.

[字 解]

- ②⑤ 驕; 自矜 교만할교
- ②⑥ 矜; 自賢 자랑할금
- ②⑦ 伐; 征也 칠벌
- ②⑧ 夸; 夸自大 큰체할과

[直 譯]

籌策은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經綸은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하며, 行檢은 뽐내지 말아야 하고, 度量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原 文]

②⑨[31] ③③[32] [33]
頭有識見하고 肩有威儀하고 腰有材幹하고 臂
[34]
有方略이니라.

[字 解]

- ②⑨ 識; 見知也 알식

㉔ 威; 尊嚴 위엄위

㉕ 儀; 形也 꼴의

[字句解釋]

[31] 識見; 知識과 見聞 41)

[32] 威儀; 威嚴있는 儀容 42)

[33] 材幹; 재주로서의 活動的 能力 43)

[34] 方略; 方法과 才略, 무슨일을 하는 방법과 둘러대는 꾀 44)

[解 說]

頭肩腰臀은 人事가 人體內에서 具體化한 것이다. 人體의 後面部位에 위치하고 있다. 45)

[直 譯]

머리에는 識見이 들어있고, 어깨에는 威儀가 갖추어져 있으며, 허리에 材幹이 있고, 볼기에는 方略이 있다.

[原 文]

識見은 必無奪也오, 威儀는 必無侈也오, 材幹은 必無懶也오, 方略은 必務竊也니라. 46)

[字 解]

㉔ 奪; 強取 襄一漁 빼앗을탈

㉕ 侈; 奢一驕也 사치할치

㉖ 懶; 懈怠也 게으르나

㉗ 竊; 盜也 도둑질할절

[解 說]

奪侈懶竊은 다같이 頭肩腰臀의 先天的 기능을 좀먹는 것들이므로 이런것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46)

[直 解]

識見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고, 威儀는 절대로 사치스러울 수 없으며, 材幹은 절대로 느릿느릿 할 수 없고, 方略은 절대로 좀도둑질 할 수 없다.

[原 文]

耳目鼻口는 觀於天也오, 肺脾肝腎은 立於人也 47)

[37]

[38]

오, 領臆臍腹은 行其知也오, 頭肩腰臀은 行其行也니라.

[字句解釋]

[35] 耳目鼻口 觀於天也; 天은 天機이며, 耳目鼻口의 官能이 生理的임에 그치지 않고 形而上的인 면까지 擴充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47)

[36] 肺脾肝腎 立於人也; 人은 人事이며, 肺脾肝腎의 機能이 生理的인 점에 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48)

[37] 領臆臍腹 行其知也; 領臆臍腹은 人間の 心이 作用하는(籌策·經綸·行檢·度量) 產室인즉 여기에서 知가 行하여진다. 49)

[38] 頭肩腰臀 行其行也; 頭肩腰臀에서는(方略·材幹·威儀·識見을 通하여) 腹에서 行하는 知가 行하는대로 行하여지는 것이라고 要略했다. 50)

[解 說]

天人知行的 四元構造로 「全人的 統一體」를 형성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四象說의 人間像」이다. 51)

[直 譯]

耳目鼻口는 「하늘」에서 관찰하게 되고, 肺脾肝腎은 「사람」에게서 바로 서며, 領臆臍腹은 그의 「知慧」를 실천에 옮기고, 頭肩腰臀은 그의 「行業」을 실행한다.

[原 文]

[39]

[40]

天時는 大同也오, 事務는 各立也오, 世會는 大同也오, 交遇는 各立也오, 人倫은 大同也오, 黨與는 各立也오, 地方은 大同也오, 居處는 各立也니라.

[字句解釋]

[39] 天時 大同也; 耳目鼻口는 天機에 屬한 것인바 天機는 모두(天時·世會·人倫·地方)

大同化運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矛盾이나 對立이 끊임없이 調和되는 것이다.⁵²⁾

[40] 事務 各立也; 人事에 있어서는 모두(事務·交遇·黨與·居處) 分裂하려는 方向으로 기울어진다. 人間의 肺脾肝腎은 調和의 要因이 不足하기 때문이다.⁵³⁾

[解 說]

天機의 四元은 大同한 것이요, 人事의 四元은 各立함을 說明했다.⁵⁴⁾

[直 譯]

天時는 大同한 것이요, 事務는 各立하는 것이요, 世會는 大同한 것이요, 交遇는 各立하는 것이요, 人倫은 大同한 것이요, 黨與는 各立하는 것이요, 地方은 大同한 것이요, 居處는 各立하는 것이니라.

[原 文]

籌策은 博通也오, 識見은 獨行也오, 經綸은 博通也오, 威儀는 獨行也오, 行檢은 博通也오, 材幹은 獨行也오, 度量은 博通也오, 方略은 獨行也니라.

[字 解]

⑤ 博; 度也 넓을박, 大也 클박

[字句解釋]

[41] 博通; 普通性·大同⁵⁵⁾

[42] 獨行; 獨自性·各立⁵⁶⁾

[直 譯]

籌策은 博通하는 것이요, 識見은 獨行하는 것이고, 經綸은 博通하는 것이요, 威儀는 獨行하는 것이며, 行檢은 博通하는 것이요, 材幹은 獨行하는 것이고, 度量은 博通하는 것이요, 方略은 獨行하는 것이다.

[原 文]

[43] 大同者 天也오, 各立者 人也오, 博通者 性也오,

[46] 獨行者 命也니라.

[43] 天; 天時·世會·人倫·地方⁵⁷⁾

[44] 人; 事務·交遇·黨與·居處⁵⁸⁾

[45] 性; 籌策·經綸·行檢·度量⁵⁹⁾

[46] 命; 識見·威儀·材幹·方略⁶⁰⁾

[直 譯]

大同한 자는 「天」이요 各立하는 자는 「人」이요, 博通하는 자는 「性」이요 獨行하는 자는 「命」이다.

[原 文]

[47] 耳好善聲하고 [48] 目好善色하고 [49] 鼻好善臭하고 [50] 口好善味니라.

[字句解釋]

[47] 善聲; 「아름다운 音律」은 물론이거니와 「착한 말」이나 「글 읽는 소리」도 善聲일 것이다.⁶¹⁾

[48] 善色; 「고운 빛깔」은 물론이거니와 「부드러운 얼굴 빛」도 善色일 것이다.⁶²⁾

[49] 善臭; 「구수한 냄새」는 물론이거니와 「教養있는 태도에서 풍기는 냄새」도 善臭일 것이다.⁶³⁾

[50] 善味; 「달콤한 맛」은 물론이거니와 「기름진 고장의 쌀맛」도 善味일 것이다.⁶⁴⁾

[直 譯]

귀는 善聲을 좋아하고, 눈은 善色을 좋아하며, 코는 善臭를 좋아하고, 입은 善味를 좋아한다.

[原 文]

善聲은 順耳也오, 善色은 順目也오, 善臭는 順鼻也오, 善味는 順口也니라.

[直 譯]

善聲은 귀에 順應하고, 善色은 눈에 順應하며, 善臭는 코에 順應하고, 意味는 입에 順應한다.

[原 文]

肺惡惡聲하고 脾惡惡色하고 肝惡惡臭하고 腎

惡惡味니라.

[解 說]

聲色臭味은 耳目鼻口의 所管이지만 耳目鼻口는 肺脾肝腎과 表裏關係에 있으므로 惡惡하는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⁶⁵⁾

[直 譯]

肺는 惡聲을 싫어하고, 脾는 惡色을 싫어하며, 肝은 惡臭를 싫어하고, 腎은 惡味를 싫어한다.

[原 文]

惡聲은 逆肺也오, 惡色은 逆脾也오, 惡臭는 逆肝也오, 惡味는 逆腎也니라.

[直 譯]

惡聲은 肺를 거슬리고, 惡色은 脾를 거슬리며, 惡臭는 肝을 거슬리고, 惡味는 腎을 거슬린다.

[原 文]

[51]

頤有驕心하고, 臆有矜心하고, 臍有伐心하고, 腹有夸心이니라.

[字 句 解 釋]

[51] 頤有驕心; 턱에는 籌策이 있고 籌策은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데, 턱에 驕心이 있다면 이는 二律背反의인 二重性이다. 이것은 가슴이나 배꼽·아랫배 모두 같은 것이다.⁶⁶⁾

[直 譯]

턱에서 驕心이 있고, 가슴 속에는 矜心이 들어 있으며, 배꼽에는 伐心이 들어 있고, 아랫배에는 夸心이 들어 있다.

[原 文]

③⑦[52]

③⑧[53]

驕心은 驕意也오, 矜心은 矜慮也오, 伐心은 伐^{③⑨}[54] 操也오, 夸心은 夸志也니라.

④⑩[55]

[字 解]

③⑦ 意; 志之發 뜻의

③⑧ 慮; 謀思 생각려

③⑨ 操; 把持 잡을조, 從也 조종할조

④⑩ 志; 心之所之 뜻지

[字 句 解 釋]

[52] 驕意; 自己가 優越한 것처럼 마음 속으로 自負하는 마음이고, 그 뜻을 表示하는 것은 아니다.⁶⁷⁾

[53] 矜慮; 自己가 잘난 척하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고 間或 이것을 겉으로 表現하기도 하나 아주 소극적이다.⁶⁸⁾

[54] 伐操; 操는 命令대로 行動하는 것이고, 伐이란 것은 남을 깔보는 것인즉, 남을 사람 앞에서 멸시하는 言動이나 行爲를 敢行하는 것은 伐과 操가 合勢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⁶⁹⁾

[55] 夸志; 自己가 偉大한 척하는 뜻을 간직하고 있지만 이것을 表現하지 않는 마음이다.⁷⁰⁾

[直 譯]

驕心이란 驕意인 것이요, 矜心이란 矜慮인 것이요, 伐心이란 伐操인 것이요, 夸心이란 夸志인 것이다.

[原 文]

④⑪[56]

頭有擅心하고, 肩有侈心하고, 腰有懶心하고, 臀有慾心이니라.

④⑫ 擅; 自專 오로지할천

④⑬ 慾; 情所好嗜 욕심 욕

[字 句 解 釋]

[56] 頭有擅心; 머리에 識見이 있고 識見은 때맞지 않아야 한는데 머리에 擅心이 있다면 이는 二律背反의 二重性인 것이다.⁷¹⁾

[直 譯]

머리에 擅心이 있고, 어깨에는 侈心이 있으며, 허리에 懶心이 있고, 불기에는 慾心이 있다.

[原文]

[57] 擅心은 奪利也오, 侈心은 自尊也오, 懶心은 自卑也오, 慾心은 竊物也니라.

[字解]

④3 卑; 下也 낮을비, 賤也 천할비

[字句解釋]

[57] 奪利;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거나, 깎아 먹고자하는 마음성을 말하는 것이다.⁷²⁾

[58] 自尊; 제 스스로가 높은 사람인 체하는 마음성을 말한다.⁷³⁾

[59] 自卑; 自己가 스스로 자기몸을 천하게하며, 낮게 하는 것을 말한다.⁷⁴⁾

[60] 竊物;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도둑 心思를 말하는 것이다.⁷⁵⁾

[直譯]

擅心은 奪利하는 것이요, 侈心은 自尊하는 것이요, 懶心은 自卑하는 것이요, 慾心은 竊物하는 것이다.

[原文]

人之 耳目鼻口는 好善이 無雙也오, 人之 肺脾肝腎은 惡惡이 無雙也오, 人之 頷臆臍腹은 邪心이 無雙也오, 人之 頭肩腰臀은 怠行이 無雙也니라.

[字句解釋]

[61] 邪心; 正心(籌策·經綸·行檢·度量)의 反驕·矜·伐·夸의 總稱⁷⁶⁾

[62] 怠行; 正行(識見·威儀·材幹·方略)의 反奪·侈·懶·竊의 總稱⁷⁷⁾

[解說]

好善·惡惡은 道心の 兩面相이요, 邪心·怠行은 人心의 兩面相이다.⁷⁸⁾

[直譯]

사람들의 耳目鼻口는 好善함이 더할 나위 없고, 사람들의 肺脾肝腎은 惡惡함이 더할 나위

없으며, 사람들의 頷臆臍腹은 邪心이 더할 나위 없고, 사람들의 頭肩腰臀은 怠行이 더할 나위 없다.

[原文]

堯舜之行仁이 在於 五千年前而 至于今하여 天下之稱善者 皆曰 堯舜則 人之好善이 果無雙也오. 桀紂之行暴이 在於 四千年前而 至于今하여 天下之稱惡者 皆曰 桀紂則 人之惡이 果無雙也오. 以孔子之聖으로 三千之徒 受教而 惟顔子 三月에 不違仁하고 其餘는 日月이 至焉而 心悅誠服者 只有 七十二人則 人之邪心이 果無雙也오. 以文王之德으로, 百年而後에 崩하사대 未洽於 天下러시니 武王 周公이 繼之然後에 大行而 管叔蔡叔이 猶以至親으로 作亂則 人之怠行이 果無雙也니라.

[字解]

④4 桀; 왕이름걸

④5 紂; 商辛號 상왕이름주

④6 洽; 和也 화할음

[解說]

好善·惡惡·邪心·怠行의 事例를 중국 故事에서 引證하고 있다.⁷⁹⁾

[直譯]

堯·舜이 仁政을 펴신지 5千年이 되었건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天下의 善을 말하는 자는 모두 「堯·舜」이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好善은 과연 더할 나위 없다. 桀·紂가 暴政을 편지도 4千年이나 되었건만 天下의 惡을 말하는 자는 모두 「桀·紂」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惡惡이 과연 더할 나위 없다. 孔子같은 聖人에게 3千 제자가 가르침을 받았건만 오직 顔子만이 석달동안 사람구실에서 었 나가는 일이 없었고, 다른 제자들은 하루나 한 달을 넘지 못했으며, 기꺼이 정성껏 선생을 따

르던 자 겨우 72人임을 보면 사람들의 邪心은 과연 더할 나위 없다. 文王은 德望으로 百年토록 산 후에 崩去하였건만 아직도 天下에 洽足하게 못했고, 武王과 周公이 그를 繼承한 연후에야 비로소 크게 施行되었는데, 그나마도 管叔·蔡叔은 至親의 몸으로 叛亂까지 꾀한 것을 보면 사람들의 怠行은 과연 더할 나위 없다.

〔原文〕

耳目鼻口는 人皆可以爲堯舜이오, 頤臆臍腹은 人皆自不爲堯舜이오, 肺脾肝腎은 人皆可以爲堯舜이오, 頭肩腰腎은 人皆自不爲堯舜이니라.

〔解說〕

耳目鼻口의 好善과 肺脾肝腎의 惡惡은 可能性의 근거가 되고, 頤臆臍腹의 邪心과 頭肩腰腎의 怠行은 自律的 克己의 對象이 됨을 지적한 것이다.⁸⁰⁾

〔直譯〕

耳目鼻口는 사람마다 다 堯·舜이 될 수 있고, 頤臆臍腹은 사람마다 다 자기 스스로 堯·舜이 되지 못한다. 肺脾肝腎은 사람마다 다 堯·舜이 될 수 있고, 頭肩腰腎은 사람마다 다 자기 스스로 堯·舜이 되지 못한다.

〔原文〕

人之 耳目鼻口 好善之心은 以衆人耳目鼻口로 論之而 堯舜이 未爲加一鞭也⁴⁷⁾오. 人之 肺脾肝腎 惡惡之心은 以堯舜 肺脾肝腎으로 論之而 衆人이 未爲少一鞭也니 人皆可以爲堯舜者 以此오.

人之 頤臆臍腹之中에 誣世之心이 每每隱伏也니 存其心 養其性然後에 人皆可以爲 堯舜之知也오.

人之 頭肩腰腎之下에 罔民之心이 種種暗藏也니 修其身 立其命然後에 人皆可以爲 堯舜之行也니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니라.

〔字解〕

47) 鞭; 策馬 莖 채찍편

48) 誣; 欺罔 속일무, 詐也 간사할무

49) 罔; 誣也 속일망

〔解說〕

聖凡一如를 論한 귀절이다. 倫理的 可能性과 自律性에 있어서 聖人이나 衆人이나 조금도 다른 바 없이 均等한 存在라는 것이다. 誣世之心은 驕矜伐夸의 邪心때문이고, 罔民之心은 奪侈懶竊의 怠行때문이다. 存心養性은 本有의 慧知를 存養하는 것이고, 修身立命은 本有의 正行을 修立하는 것이다.⁸¹⁾

〔直譯〕

사람들의 耳目鼻口가 好善하는 마음은 沒사람들의 耳目鼻口를 놓고 논해본다 하더라도 堯·舜에게 채찍 한 개만큼도 더 나은 데가 없다. 사람들의 肺脾肝腎이 惡惡하는 마음은 堯·舜의 肺脾肝腎을 놓고 논해본다 하더라도 沒사람들에게 채찍 한 개만큼도 덜한데가 없다. 사람마다 다 堯·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사람들의 頤臆臍腹 中에는 세상을 속여보려는 마음이 늘 숨겨져 있으니 제 本心을 간직하고 제 本性을 기른 연후에야 堯·舜같이 知慧롭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의 頭肩腰腎 밑에는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가끔 감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가다듬고 正命을 바로 세운 연후에야 사람마다 다 堯·舜의 行實처럼 될 수 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스스로 堯·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原文〕

耳目鼻口之情은 行路之人이 大同於協義故로 好善也니 好善之實이 極公也니 極公則亦極無私也오. 肺脾肝腎之情은 同室之人이 各立於擅利故로 惡惡也니 惡惡之實이 極無私也니 極無私則亦極公也오. 頤臆臍腹之中에 自有不息之知이 如切如磋而 驕矜伐夸之私心에 卒然敗之則 自棄⁵⁰⁾

其知而 不能博通也오. 頭肩腰腎之下에 自有不息
 之行이 赫兮咍兮而 奪侈懶竊之慾心에 卒然陷之
 則 自棄其行而 不能正行也니라.

〔字 解〕

- ㉞ 礎; 磨治 갈차
- ㉟ 棄; 損也 버릴기
- ㊱ 赫; 烜發也 빛날혁
- ㊲ 兮; 語助辭 어조사체
- ㊳ 咍; 威儀宜著 점잖을원

〔字句解釋〕

[63] 如切如礎; 학문의 道를 연마함 <詩經> ⁸²⁾

[64] 赫兮咍兮; 德·威儀등이 光明盛大한 것 <詩經> ⁸³⁾

〔解 說〕

耳目鼻口의 好善과 肺脾肝腎의 惡惡은 다 같
 이 極公無私하지만 전자는 「大同於協義」하고
 후자는 「各立於擅利」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
 다. 頤臆臍腹의 慧知나 頭肩腰腎의 正行은 다
 같이 切嗟 切喧하지만 언제나 驕矜伐夸의 私心
 과 奪侈懶竊의 慾心の 制約을 받고 있다. 그러
 므로 好善 惡惡과 慧知 正行은 道心の 근거가
 되고, 邪心 怠行은 人心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
 서 倫理的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⁸⁴⁾

〔直 譯〕

耳目鼻口의 情은 길 가는 사람들도 義로움에
 協贊하는데 있어서는 大同한 까닭에 好善하는
 것이다. 好善의 實相은 지극히 公平하다. 지극
 히 公平하면 또한 지극히 私가 없을 것이다.
 肺脾肝腎의 情은 같은 방안에 있는 사람끼리
 도 利끝을 따지는 점에 있어서는 제각기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 까닭에 惡惡하는 것이다.
 惡惡의 實相은 지극히 私가 없는 것이다. 지극
 히 私가 없다면 또한 지극히 公平할 것이다.
 頤臆臍腹 中에는 스스로 쉽이 없는 知慧가 끊
 듯 같듯 하면서 들어있으나 驕矜伐夸하는 私心
 이 갑자기 이를 무너뜨리면 스스로 그 知慧를

버리면서 博通할 수 없게된다. 頭肩腰腎 밑에
 는 스스로 쉽이 없는 行實이 의젓히 빛나면서
 들어있으나 奪侈懶竊하는 慾心이 갑자기 이를
 陷井속에 빠뜨리면 스스로 그 行實을 버리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原 文〕

耳目鼻口는 人皆知也오, 頤臆臍腹은 人皆愚也
 오, 肺脾肝腎은 人皆賢也오, 頭肩腰腎은 人皆不
 肖也니라.

〔解 說〕

知와 愚는 對가 되고, 賢과 不肖도 對가 된
 다. 知와 賢은 遇한 점, 愚와 不肖는 不及한
 점에서 다 같이 失中이 되는 것이다. ⁸⁵⁾

〔直 譯〕

耳目鼻口는 사람마다 다 슬기롭고 頤臆臍腹
 은 사람마다 다 어리석다. 肺脾肝腎은 사람마다
 다 현명하고 頭肩腰腎은 사람마다 다 작고 못
 난 것이다.

〔原 文〕

人之耳目鼻口는 天也니 天이 知也오, 人之肺
 脾肝腎은 人也니 人이 賢也오. 我之頤臆臍腹은
 [65] [66]
 我自爲心而 未免愚也니 我之免愚는 在我也오,
 [67] [68]
 我之頭肩腰腎은 我自爲身而 未免不肖也니 我之
 免不肖는 在我也니라.

〔字句解釋〕

[65] 我自爲心; 籌策·經綸·行檢·度量 ⁸⁶⁾

[66] 未免愚; 驕·矜·伐·夸 ⁸⁷⁾

[67] 我自爲身; 識見·威儀·材幹·方略 ⁸⁸⁾

[68] 未免不肖; 奪·侈·懶·竊 ⁸⁹⁾

〔解 說〕

我之·在我라 하여 自我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免愚」「免不肖」의 責任이 강조되고 倫
 理的 自律性이 강조된 셈이다. ⁹⁰⁾

〔直 譯〕

사람의 耳目鼻口는 天이니 天은 슬기롭고,
사람들의 肺脾肝腎은 人이니 人은 현명하다.
나의 頤臆臍腹은 저절로 내마음이 되어 있건
만 어리석음을免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어리
석음을免하기란 나 하기에 따른 것이다. 내
頭肩腰臀은 저절로 내 몸이 되어 있건만 담
잡음을免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담잡음을免하
기란 나 하기에 따른 것이다.

〔原文〕

[69] 天生萬民에 性以 慧覺하니 萬民之生也에 有
慧覺則生하고 無慧覺則死니 慧覺者는 德之所由
生也니라.

〔字句解釋〕

[69] 慧覺; 行其知之 其知이니 籌策·經綸·行檢·
度量은 知之 四元이다. 이들은 博通者로서
의 性이기도 하다.⁹¹⁾

〔直譯〕

하늘이 萬民을 내실 때에 性은 慧覺으로써
마련해 주었으니 萬民이 삶에 있어서 慧覺이
있으면 살고 慧覺이 없으면 죽는다. 慧覺이란
德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原文〕

[70] 天生萬民에 命以 資業하니 萬民之生也에 有資業
則生하고 無資業則死니 資業者는 道之所由生也니라.

〔字句解釋〕

[70] 資業; 行其行之 其行이니 識見·威儀·材幹·
方略은 行之 四元이다.⁹²⁾

〔直解〕

하늘이 萬民을 내실 때에 命은 資業으로써
마련해 주었으니 萬民이 삶에 있어서 資業이
있으면 살고 資業이 없으면 죽는다. 資業이란
道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原文〕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은 皆出於慧覺이
오. 士農工商 田宅邦國 諸般百用은 皆出於資業

이니라.

〔解 說〕

慧覺에 의한 百善은 精神世界의 문제이고,
資業에 의한 百用은 物質世界의 문제이다.⁹³⁾

〔直 譯〕

仁義禮智忠孝友悌등 온갖 善行은 다 慧覺에
서 나오고, 士農工商田宅邦國의 모든 所用은 다
資業에서 나온다.

〔原文〕

慧覺은 欲其兼人而 有教也오. 資業은 慾其廉
己而有功也니 慧覺私小者 雖有其傑이나 巧如曹
操而 不可爲教也오. 資業橫濫者 雖有其雄이나
猛如秦王而 不可爲功也니라

〔字 解〕

- ⑤⑤ 兼; 겸할겸
- ⑤⑥ 廉; 맑을림
- ⑤⑦ 傑; 빼어날걸
- ⑤⑧ 濫; 濫也 넘칠람
- ⑤⑨ 雄; 武也 웅장할웅

〔字句解釋〕

[71] 曹操; 魏의 武帝·巧智·權謀에 능하고 任
依防蕩하여 후세의 指彈을 받는 자⁹⁴⁾

[72] 秦王; 秦始皇으로 坑儒焚書의 暴政으로 유
명하다.⁹⁵⁾

〔解 說〕

曹操나 秦皇이나 모두 倫理·道德의 精神的
資質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物欲의 化身이 되
었음을 지적한 것이다.⁹⁶⁾

〔直 譯〕

慧覺은 남의 몫까지 겸하고자 해야만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資業은 자신이 청렴해야만 功
을 세울 수 있다. 慧覺이 私少한 자로서 비록
傑出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曹操처럼 巧猾하
면 남을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資業을 마음
대로 휘두른 자 중에는 비록 雄大한 자가 있

기는 하지만 秦始皇처럼 사나우면 功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原文]

好人之善而 我亦知善者是 至性之德也오. 惡人之惡而 我必不行惡者是 正命之道也라. 知行이 積則 道德也오. 道德이 成則 仁聖也니, 道德이 非他라 知行也오. 性命이 非他라 知行也니라.

[直譯]

남의 善行을 좋아하면서 나도 善行할 줄 아는 것은 지극한 天性의 德이요, 남의 惡行을 미워하면서 나는 결코 惡行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天命의 道인 것이다. 知·行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道·德이요 道·德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仁·聖이니, 道·德이 다름 아니라 知·행이요 性命이 다름 아니라 知·행인 것이다.

[原文]

或曰 舉知而 論性은 可也而, 舉行而 論命은 何義耶아, 曰 命者는 命數也니 善行則 命數自美也오. 惡行則 命數自惡也니, 不待 卜筮而 可知也니라. 詩云 永言配命이 自求多福이라하니 卽此義也니라.

[字解]

- ⑥0 耶; 疑辭 그거가야. 語助辭
- ⑥1 卜; 占之 점칠복
- ⑥2 筮; 卜一著點 점서

[字句解釋]

[73] 命數; 運命·宿命·數란 術數의 數⁹⁷⁾

[74] 卜筮; 산가지로 점치는 것⁹⁸⁾

[解說]

倫理的 善行과 惡行에 따라서 그의 命數가 결정된다면 이는 「倫理的 宿命論」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倫理的 行爲가 그의 運命의 美惡을 결정 지워주기 때문이다.⁹⁹⁾

[直譯]

어느 사람이 問기를 「知를 가지고 性을 논하는 것은 옳지만 行을 가지고 命을 논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命이란 命數이니 善行을 하면 命數는 저절로 아름답고 惡行을 하면 命數는 저절로 나빠질 것이니 占쳐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옛시에 “길이 길이 태어난 天命”이라 하지만 잘 살고 못 살기는 나하기 마련이니라」한 것은 곧 이 뜻인 것이다.

[原文]

或曰 吾子之言에 曰 耳聽天時하며 目視世會하며 鼻嗅人倫하며 口味地方이라하니 耳之聽天時와 目之視世會則可也而 鼻가 何以 嗅 人倫하며 口로 何以 味 地方乎아, 曰 處於人倫하야 察 人外表하야 默探 各人才行之 賢不肖者 此非 嗅耶아. 處於地方하야 均嘗各處 人民生活之 地利者 此非 味耶아.

[字解]

- ⑥3 默; 恭一靜也 잠잠할묵, 조용할묵
- ⑥4 探; 遠取之 더듬을탐
- ⑥5 嘗; 探味 맛볼상

[直譯]

어느 사람이 問기를 「그대는 말하기를 귀는 天時를 듣고, 눈은 世會를 보고, 코는 人倫을 맡고 입은 地方을 맛본다고 하였는데 귀로 天時를 듣고, 눈으로 世會를 본다는 것은 옳거니와 코로 어떻게 人倫을 맡으며, 입으로 어떻게 地方을 맛본다는 것인가」 「人倫關係에 끼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外表를 관찰하기도 하고, 각 個人들의 재주와 행실이 현명한가 답잖은가를 묵묵히 더듬어 보는 것이 곧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어느 地方에 살고 있으면서 각처의 人間들의 生活에 끼치는 利害關係를 골고루 입맛다시듯 하는 것이 곧 맛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原文〕

存其心者 責其心也라. 心體之明暗이 雖若自然而 責之者는 淸하고 不責者는 濁하니 馬之心覺이 點於牛者는 馬之責心이 點於牛也오. 鷹之氣勢가 猛於鷗者는 鷹之責氣가 猛於鷗也니 心體之淸濁과 氣字之強弱이 在於 牛馬鷗鷹者를 以理 推之而 猶然커던 況於人乎아 或相倍從하며 或相千萬者 豈其生而 輒得하야 茫然不思하며 居然自至而 然哉아.

〔字解〕

- ⑥ 點; 慧也 약할힘
- ⑦ 鷹; 角一鷲鳥 매응
- ⑧ 鷗; 鴉 솔개치
- ⑨ 況; 矧也 하물며황
- ⑩ 從; 五倍也 오곱사
- ⑪ 輒; 忽然 문득침
- ⑫ 茫; 廣大貌 망망할망

〔解說〕

責心·責氣의 自我意識을 강조하고 있다.¹⁰⁰⁾

〔直譯〕

본심을 간직한 자는 그의 본심을 책망하는 것이다. 心體의 明暗이 비록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를 책망하는 자는 맑고, 이를 책망하지 않는 자는 탁한 것이다. 말의 깨우친 마음이 소의 그것보다 훨씬 민첩한 것은 말의 책망하는 마음이 소의 그것보다 훨씬 민첩하기 때문이다. 매의 기세가 솔개의 그것보다 사나운 것은 매의 책망하는 마음이 솔개의 그것보다 훨씬 사나움기 때문이다. 心體의 淸濁이나 氣字의 強弱이 짐승이나 새들에 있어서도 理致로 따지자면 이와 같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라. 혹 서로 곱질이 되기도 하고, 혹 서로 千萬곱질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 나면서부터 문득 얻어지거나 멍청하게 되새겨 생각할 줄도 모르면서 그대로 앉은채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인가.

IV. 考 察

性命이란 本是 中庸에서 「天命之爲性」에서 緣由한 것이다. 그러나 四象說에는 天·人·性·命의 四元構造的 要素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性命이 基幹을 이루었고 性命의 四象說의 概念을 把握하는 것이 四象說을 理解하는 入門이요 捷徑이 될 것이다.¹⁰¹⁾

1. 天機의 四象의 概念

宇宙大自然의 理法을 天機라 規定하고 地方·人倫·世會·天時의 四大具象을 表出하였다. 天機는 人事와의 不可分離의 關係性을 가지고 있어 「耳聽天時하고 目視世會하며 鼻嗅人倫하고 口味地方이라」하여 天人合一이란 傳統的 思惟를 糾合하였다.

2. 人事의 四象의 概念

人事란 人間生活의 樣相과 與件이니 居處·黨與·交遇·事務로 規定하고 「肺達事務하고 脾合交遇하며 肝立黨與하고 腎定居處라」하여 天機와 人事의 綱目 關係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耳目鼻口는 觀於天이라 하여 人間生活의 向外的 機能을 表出하는 機關이요 肺脾肝腎은 立於人이라 하여 向內的 機能을 간직한 機關이라 할 수 있다.

3. 天機와 人事의 綱目關係

天機와 人事가 相應하는 關係는 綱目關係이며 天·人은 先天·後天의 概念으로도 解釋할 수 있다. 天은 全體性 또는 普遍性(大同)으로 보았고, 人은 特殊性 또는 個性性(各立)으로 看做하였다. 사람에게 있어 耳目鼻口는 向外的으로 大自然과 相應하고, 肺脾肝腎은 向內的으로 人事에 相應하므로 天·人의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4. 四象의 實踐倫理

人間을 便宜上 上焦·中上焦·中下焦·下焦로 나누었는데 이는 肺脾肝腎 臟器와의 聯

關性을 갖기 爲함이나 人體前面部位를 턱(頤), 가슴(臆), 배꼽(臍), 배(腹)로 나누었고, 人體後面部位를 머리(頭), 어깨(肩), 허리(腰), 볼기(臀)로 區分한다. 그러나 耳目鼻口와 肺脾肝腎과 같이 어떤 特殊性을 지닌 것이 아니라, 오직 部位만을 指摘할 따름이다. 그런데 人體의 前面部位에 있는 턱·가슴·배꼽·배는 天機의 人間化를 具體적으로 說明하기 爲함이고, 人體의 後面部位에 있는 머리·어깨·허리·볼기에는 人事의 內面性을 具體화하기 爲함으로, 天·人·性(知)·命(行)으로 四象說의 基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天機와 人事, 耳目鼻口와 肺脾肝腎,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이 相應하고, 複合적으로는 耳目鼻口와 頤臆臍腹이 서로 같은 系統으로 形成되었고, 肺脾肝腎과 頭肩腰臀이 같은 系統으로 相應으로 있다.

人間의 身體的 構造와 生理的 機能은 勿論이요, 이에 따른 心性的 情意와 精神的 慾求로서의 喜·怒·哀·樂을 크게 問題삼았고, 나아가서는 人間의 倫理的 生活의 根源으로서 好善·惡惡과 宇宙의 原理로서의 性·命을 根幹으로 한 具體的 構造의 統一體로 看做했다.

性命論의 結論에서 「사람의 耳目鼻口는 모두 하늘에 屬해 있으니 하늘은 知慧스러운 것이요, 사람의 肺脾肝腎은 사람의 몸안에 있으니 本來 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頤臆臍腹은 제 마음대로 行하니 甚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여 어리석음을 免하는 것은, 제 스스로에 달려있는 것이요, 또 頭肩腰臀은 내 몸으로 行하는 것이니 甚히 不肖한 것이다. 이에 不肖를 免하는 것도 내 自身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하늘이 人間을 내실때 慧覺과 生業을 주었으니, 慧覺이란 모든 善을 가져오는 精神世界를

意味하고, 生業이란 여러가지 生活用途를 이룩하는 物質世界를 意味한 것이다. 그래서 慧覺과 生業·性命과 知行으로서의 人間生活의 兩面性을 이루고 있다. 萬一 慧覺이 지나치면 生業을 輕視하게 되고, 生業에 지나치게 沒頭하면 慧覺이 흐트러지게 되므로, 慧覺과 生業은 반드시 같은 比率로 이루어져야 한다. 頤臆臍腹 四元의 知慧는 全體性으로 性-慧覺-德으로 昇華시켰고, 頭肩腰臀四元의 行爲는 個性性으로 命-生業-道로 昇華시킨 것이다.

V. 結 論

性命論은 四象醫學의 四象哲學觀이라 볼 수 있는 醫學의 哲學的 根據를 論하고 있다.

天機·人事의 宇宙論으로 시작하여 責心·責氣의 倫理論으로 끝맺고 있다.

天·人·性·命은 四象說의 四元構造로 天機와 人事·性과 命이 對待關係를 이루며, 天機와 性은 相應하고 人事와 命도 또한 相應하며, 天性과 人命도 크게 對應하니 天·人·性·命의 陰陽說의 四元構造가 存在한다.

人間은 倫理的으로 好善·惡惡의 可能性의 존재이며, 全體人間으로서 善惡의 可能性의 主體는 곧 自我이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書院, 1979.
2. 朴奭彥;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1977.

3. 韓東錫；東醫壽世保元註釋，서울，誠理會出版社，1967.
4. 宋一炳；四象原論，서울，慶熙大 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1978.
5. 洪淳用·李乙浩；四象醫學原論，서울，杏林出版社，1979.
6. 尹吉榮；四象體質醫學論，서울，明寶出版社，1986.
7. 李乙浩；東武四象說의 經學的 基調，黃帝醫學 Vol.2, No.2, 1977.
8. 洪淳用；東醫壽世保元 性命論 註解，大韓韓醫學會誌，42號，1974.
9. 洪淳用；四象醫學의 基本原理，東洋醫學，Vol.13, No.2, 1987.
10. 崔鍾百；四象醫學이 東洋醫學에 미치는 醫學的인 意義，黃帝醫學，Vol.3, No.2, 1978.
11. 李乙浩；李東武 四象說 論攷，黃帝醫學，Vol.1, No.2, 1976.